

미래시민과 돌봄교육: 도덕적 휴머니즘에서 정치적 휴머니즘으로

나상원*

이 글의 목적은 대안의 도덕교육으로 제시되는 돌봄교육의 내용과 특징을 소개하고, 그것이 도덕의 영역을 넘어 정치사회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흐름을 강조함으로써, 미래시민교육에서 돌봄교육이 가지는 정치사회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첫째, 나딩스의 돌봄윤리를 포함하여 이후에 발전되고 제시되는 돌봄윤리를 소개하고 이를 나딩스 논의와의 비교 속에서 확장한다. 둘째, 나딩스를 중심으로 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나딩스를 넘어선 정치사회 측면으로 확장된 돌봄윤리 논의가 갖는 미래시민에 대한 교육적 함의를 살펴본다. 셋째, 돌봄교육이 도덕적인 시민이라면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지점과 연결되는 점을 고려할 때, 나딩스의 '도덕적 휴머니즘' 교육을 넘어 정치사회적으로 확장된 인간다움을 위한 교육을 '정치적 휴머니즘'이라 칭하고, 이를 함양하기 위한 미래시민교육과 그 함의를 살펴본다.

주제어: 미래시민교육, 돌봄교육, 도덕적 휴머니즘, 정치적 휴머니즘, 널 나딩스

* 우석대학교 연구교수

1. 서론

2023년 ‘서이초 사건’은 교사에 대한 학부모 ‘갑질’이라는 문제를 넘어 ‘권리 중심’의 사회적 병리 현상의 단면을 보여준다. 관련하여 “‘권리 중독’에 빠진 부모들”이라는 제목의 최근 신문기사는 모든 관계를 단지 거래로 인식하는 거래 지향의 인간관계, 교육을 지식 서비스로 이해하고 공교육을 아이가 받아야 할 서비스로 간주하는 학부모의 권리 과잉, 교원이 더 이상 자녀의 본보기로 여겨지지 않고 학교가 더 이상 인성을 배우는 다채로운 공간으로 인식되지 않는 사회풍토를 비판하며, ‘인간다움’에 대한 재성찰과 권리중독의 사회병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회적 가치의 필요성을 제언하고 있다(아시아경제 2023.09.03.).

‘서이초 사건’과 ‘권리중독’의 사회병리를 보여주는 위의 신문 기사는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한 자유주의 중심 도덕교육의 맹점을 꼬집는 것이기도 하다. 자유주의 도덕교육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이상,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당한 도덕적 행동이라는 원칙을 도덕교육의 근거로 삼는다.¹⁾ 다시 말해, 자유주의 도덕은 개인의 합리적 이해관계와 이에 기초한 비용편익의 계산, 그리고 권리 중심의 원칙을 도덕적 원천으로 삼는다. 하지만 위의 기사처럼,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로 개인의 고립화가 강화되고 그 여파를 회복하지 못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그리고 스마트폰과 1인 영상매체 등의 영향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을 기회가 적어지는 ‘핵개인화’의 환경 속에서(송길영 2024), 도덕적 개인을 육성하는 도덕교육은 개인의 합리적인 이해득실과 권리보호 이상의 그 무엇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조성되고 있다.

1) 자유주의 도덕교육의 특징과 한계에 대한 잘 정리된 설명은 박병춘(2002, 서문) 참조.

이러한 공감대 속에서 자유주의 도덕교육을 보완하는 혹은 대체하는 대안의 도덕교육 논의가 주목을 받고 있다(박병춘 1998; 2002). 이 글은 자유주의 도덕교육에 대한 비판의 맥락에서 자유주의 도덕에 대한 대안적 도덕으로 제시되는 돌봄(배려)교육에 주목한다.²⁾ 이 글의 목적은 대안의 도덕교육으로 제시되는 돌봄교육의 내용과 특징을 소개하고, 그것이 도덕의 영역을 넘어 정치사회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흐름을 강조함으로써, 이를 통해 미래시민교육에서 돌봄교육이 가지는 정치사회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돌봄교육이란 돌봄윤리를 기저에 둔 교육을 말한다. 기존의 합리적이고 원자화된 개인을 전제로 하고 사적 이익과 권리보호를 중심에 둔 자유주의 도덕교육과는 달리, 돌봄윤리는 서로 상호의존적이고 관계하는 인간을 전제하고 관계와 책임을 중심에 둔 도덕교육이다. 가장 대표적인 돌봄교육 학자로는 넬 나딩스(Nel Noddings)가 있다(Noddings 1984; 1992; 2002). 나딩스는 지식교육에 대한 대안교육으로서 돌봄교육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배려: 윤리와 도덕교육에 대한 여성적 접근법』을 포함한 다수의 저서는 여러 권 국어로 번역되어 한국 학계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나딩스를 포함한 돌봄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는 적지 않으며, 이에 대한 국내 기존 연구들은 주로 다음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첫째, 나딩스의 돌봄교육을 소개하고 돌봄윤리를 분석한 연구들이다. 예컨대, 박병춘(1998; 2002), 추병완·박병춘·황인표(2002), 한평수

2) care/caring은 학계에서 돌봄, 배려, 보살핌 등으로 번역된다. 하지만 필자는 care의 번역어로 '돌봄'을 택하고자 한다. care/caring이 내포하는 '불평등한 힘의 관계'라는 사실성, '취약한 인간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도덕적 규범성, '행동을 포함하는' 실천성 모두를 적절하게 함축할 수 있는 번역어로 '돌아본다'는 어원의 계통에 있는 '돌봄'이 그 의미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돌봄'을 주로 채택하고 있지만, 기존 연구 분야에서 통용 중인 번역어 '배려' 역시 혼용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2009), 고미숙(2018) 등의 연구는 대표적으로 도덕이론 분야에서 콜버그(Lawrence Kohlberg)의 인지 도덕 발달론적 관점을 중시하는 교육학계에 나딩스 논의를 소개하고 이와 구별되는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나딩스의 돌봄윤리를 교육과정 및 시스템, 학교 현장 등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하는 연구들이다. 예컨대, 교육과정에서 돌봄윤리를 반영할 것을 제안한 논의(박병춘 2005)와 이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김혜진 2020),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돌봄실천에 대한 논의(정민주·이숙정 2011; 조성민 2013) 등이 있다. 셋째, 나딩스의 돌봄교육을 학교현장을 넘어서 일반 시민교육에 적용하거나 그 논의를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있는 연구들이다. 예컨대, 다문화시대의 시민적 역량으로 돌봄윤리 교육을 강조한 논의(김대균 2011), 인간중심주의를 탈피한 돌봄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연구한 논의(고미숙 2022) 등이 있다.

이 글도 자유주의의 도덕교육에 대한 비판과 대안 도덕으로서 돌봄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논의한 위의 기존 연구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하지만 본 연구가 기존 연구들과 달리하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들이 나딩스를 중심으로 돌봄윤리에 대한 소개와 적용에 주목하고 있다면, 이 글은 나딩스를 포함하여 이후에 발전되고 제시되는 돌봄윤리를 소개하고 이를 나딩스 논의와의 비교 속에서 확장한다. 실제로 돌봄윤리 논의는 교육학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사회학 분야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따라서 나딩스 논의를 모태로 한 돌봄윤리의 확장을 짚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나딩스가 인간다움이 복원된 도덕교육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나딩스의 돌봄교육을 ‘도덕적 휴머니즘’으로 설명하고 이를 정치사회적으로 확장시킨다.

둘째, 확장된 돌봄윤리가 도덕교육 측면에서 갖는 함의를 살펴본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나딩스의 돌봄윤리에 기초한 도덕교육을 다루는 것과 달리, 이 글은 나딩스를 넘어선 확장된 돌봄윤리 논의가 갖는 미래시

민에 대한 교육적 함의를 살펴보는데 의미가 있다. 최근의 돌봄윤리 연구들은 정치영역에서 돌봄윤리를 적용하는 트론토(Joan Tronto)의 논의처럼, 정치영역에서 돌봄교육을 접목시켜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김민영 2020; 노희정·홍기대 2021). 이 글도 정치영역까지 포괄하는 돌봄윤리를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맥락이지만, 트론토 논의 이외의 정치적 논의들과의 접점을 통해 도덕교육적 함의를 풍성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더 나아가 이 글은 도덕교육 논의에 한정되지 않고 보다 포괄적인 측면에서 돌봄윤리의 함의를 미래시민교육의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돌봄윤리 논의가 도덕의 영역을 넘어 정치사회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면, 그것의 교육적 함의도 도덕교육을 넘어 정치사회교육의 측면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도덕적인 시민이라면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지점과 연결된다. 따라서 나딩스의 ‘도덕적 휴머니즘’을 넘어 정치사회적으로 확장된 인간다움을 위한 교육을 ‘정치적 휴머니즘’이라 칭하고 이를 함양하기 위한 미래시민교육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의 함의는 돌봄교육을 도덕적 휴머니즘을 넘어 정치적 휴머니즘으로 확장한다는 데 있다. 정치적 휴머니즘으로 확장된 돌봄교육은 인간 의존성을 긍정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그 기초를 단단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렇게 확보된 시야 속에서 돌봄이 개인 책임을 넘어 함께 해야 할 정치적 기획과 협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돌봄교육을 통해 미래시민은 공교육의 실습을 통해 돌봄실천을 체득하여 평등지향의 민주시민의 근성을 함양하도록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 글의 순서는 먼저 ‘도덕적 휴머니즘’으로 축약되는 나딩스를 중심으로 한 돌봄교육의 내용과 특징을 다루고(2장), 이후 나딩스의 돌봄윤리를 넘어 ‘정치적 휴머니즘’을 함축하는 확장된 돌봄윤리에 기초한 돌봄교육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본다(3장). 그 다음 도덕적 휴머니즘에서 정치적

휴머니즘으로 확장된 돌봄교육이 미래시민교육에 갖는 포괄적 함의를 살
펴본다(4장).

2. 나딩스와 돌봄교육: 도덕적 휴머니즘

자유주의 도덕교육에 대한 비판과 대안으로 언급되는 대표적인 논의는
저명한 교육학자 나딩스의 연구이다. 나딩스는 1950년대 교사로 커리어
를 시작한 후 교육학자와 교수로서 수학교육, 도덕교육, 교육철학, 윤리
학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교육학 저서와 논문을 집필하였다.³⁾ 돌봄교육
에 대한 초기 대표 저서인 『배려: 윤리와 도덕교육에 대한 여성적 접근
법』(1984)에서 나딩스는 합리성을 강조한 칸티안 윤리학을 비판적으로
접근한 돌봄윤리를 근거로 돌봄교육론을 개진한다.

나딩스의 돌봄교육론은 개인의 이성과 합리성, 원칙의 보편가능성과
불편부당성을 기반으로 추론 능력을 강조하는 근대 자유주의 계통의 기
존 윤리학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한다. 나딩스는 『배려: 윤리와 도덕
교육에 대한 여성적 접근법』의 서론에서 자신의 입장이 기존 윤리학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도덕에 대한 철학적 연구인 윤리학은 대체로 도덕 추론에 주의를 집중

3) 그 외 주요 저서로는 『배려교육론: 인간화 교육을 위한 접근』(*The Challenge to Care in Schools*), 『배려와 도덕교육: 인성교육을 위한 배려적 대안』(*Educating Moral People: A Caring Alternative to Character Education*)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여성과 악』(*Women and Evil*), 『지성적 믿음 혹은 불신을 위한 교육』(*Educating for Intelligent Belief or Unbelief*), 『교육철학』(*Philosophy of Education*), 『가정에서 시작하기: 돌봄과 사회정책』(*Starting at Home: Care and Social Policy*), 『21세기 교육과 민주주의』(*Education and Democracy in the 21st Century*) 등이 다수가 있다.

해 왔다....그것은 원칙과 원칙으로부터 논리적으로 이끌어 내질 수 있는 것의 확립에 주의를 집중해 왔다...나는 윤리적 행위의 바로 그 원천을 인간의 정서적 반응에 둘 것이기 때문이다...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할 초점은 타자를 어떻게 도덕적으로 만날 것인가에 있을 것이다...실로 나는 원칙의 윤리를 모호하고 불안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거부할 것이다...모든 교육의 일차적인 목적은 윤리적 이상을 키우는 것이다(Noddings 1984, 1-8).

나딩스에 따르면 기존 윤리학은 실증적이고 논리적인 도덕 추론에 치중하고 있다. 이는 경험적으로 추론 가능한 것으로 세운 보편적인 원칙과 법, 이를 전제로 한 공정성(fairness)과 정의(justice)라는 용어로 논의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칙과 보편가능성이 도덕의 유일한 지침이 되지 않는다고 나딩스는 지적한다. 나딩스가 보기에 원칙과 법의 윤리는 예외가 없는 원칙을 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정 원칙을 세우면 독선으로 흐를 수 있고 또한 원칙과 다른 입장을 비하하거나 '다르게' 대할 수 있다고 그 위험성을 비판한다(Noddings 1984, 6-7).

대신에 나딩스는 이성적인 도덕 추론에서 시작하는 윤리학이 아니라 사람에게 대한 도덕적 태도에서 시작하는 대안적 접근을 제안한다. 도덕적 딜레마에서 기존 윤리학은 기하학 문제를 다루듯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적용하는 것이지만, 대안적 접근은 윤리적 행위의 원천을 인간의 정서적 반응이나 감정 같은 실재에 두기 때문에 도덕적 딜레마에서 당사자가 무엇을 느끼는지에 주목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실제 상황과 당사자에 대한 더 많은 대화가 중요하다. 즉, 대안적 접근을 위한 도덕적 판단에는 감정적 접근이 필요하며, 상대의 현재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표정과 말투 그리고 상대가 이뤄내고 싶어하는 이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나딩스는 인간과 인간이 서로를 정서적으로 인식하는

만남과 연결을 ‘관계’로 보고, 이러한 관계 중 어머니와 자녀 관계를 원형으로 하여 돌봄관계의 윤리적 정향을 정교화한다. 그리고 이를 돌봄윤리로 부른다. 돌봄관계에 근간한 돌봄윤리는 인간을 관계 속에서 정의한다. ‘나’는 관계로 들어가는 개인이 아니라, 관계 자체가 ‘내’가 되며 육체적 자아가 놓여 있는 관계들로 내가 정의되는 것이다(박병춘 1998, 387). 나아가 행위의 도덕성 역시 보편가능성이 아니라 관계된 사람들의 감응에 의해서 판정된다(박병춘 2002, 129-133).

나딩스에 따르면, 돌봄은 전념(engrossment)과 동기적 전환(motivational displacement)으로 구성된다. 전념이란 뭔가의 필요를 느끼는 피돌봄자의 체감에 대한 돌봄자의 감정적이고 의식적 몰두로 피돌봄자와 동감(同感)하는 상태이다. 동기적 전환이란 피돌봄자에게 내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이 피돌봄자의 목적에 부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Noddings 1984, 24-28). 또한 나딩스는 돌봄을 자연적 돌봄과 윤리적 돌봄으로 구분한다. 자연적 돌봄이란 말 그대로 특별한 노력이나 의식을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나오는 돌봄이며, 윤리적 돌봄이란 타인에 대한 의무감, 즉 돌봄이 더 좋다는 의식적 노력의 발로에 의한 돌봄이다. 나딩스에 따르면, 윤리적 자아는 타인과 나를 연결시켜주고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내 자신과 연결시켜주는 관계성을 근본적으로 인식할 때 형성되며, 주고 받은 돌봄의 체험과 숙고로 발전된다. 이러한 윤리적 돌봄은 윤리적 자아에 좌우된다(Noddings 1984, 115-118).

나딩스의 돌봄교육은 윤리적 인간의 관계인 돌봄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도덕교육이다. 돌봄교육의 목적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돌볼 줄 아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다. 모든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배우고 배려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을 회복하도록 복돋우는 것이라 돌봄교육을 설명한다. 다른 사람의 처지와 그에 따른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능력인 돌봄의 인성을 육성하고 함양시키는 도덕교육인 것이다(Noddings

1984, 8).

나딩스는 돌봄교육이 인간다움을 함양한다는 차원에서 지식습득을 위한 다른 교육보다 우선한다고 설명한다. 역사, 사회, 과학, 수학 등 기존 학문분야인 이른바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에는 돌봄에 대한 교육 내용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전통적으로 여성과 관련된 태도와 능력이 폄하되어서는 안 되며, 인간의 돌봄적 능력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돌봄의 관점에서 교육을 재조직해야 한다고 보았다. “교육은 자신에 대한 배려, 친근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 동료와 지인들을 위한 배려, 동물을 위한 배려, 사물과 자연환경을 위한 배려, 인간이 만든 대상과 도구를 위한 배려, 그리고 사상(idea)과 같은 ‘배려의 중심들(centers of care)’을 근거”로 재조직되어야 한다고 나딩스는 설명한다(Noddings 1984, 9-10) 주변을 보고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인성 중심의 인격체를 길러내는 돌봄교육을 축으로 지식과 지성 중심의 기존 교육이 재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의 목적은 “유능하고 배려할 줄 알고 사랑스럽고 친애하는 사람들의 성장을 고무시켜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다(Noddings 1984, 12).

정리하건대, 돌봄윤리에서는 돌봄윤리적 자아의 발달을 도덕교육의 목적으로 이를 도야하고 함양한 인격체가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딩스에게 모든 교육의 목적은 돌봄적 인격체의 육성이며,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학문적 지성적 기능은 이러한 돌봄적 인격발달을 위한 매개수단으로 한정하고, 아이들의 돌봄역량을 단련시키기 위해 교육 자체가 ‘돌봄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으로서 돌봄을 실천하는 도덕적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돌봄교육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나딩스 논의는 국내 학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소개되고 활용되고 있다. 교육학계에서 나딩스의 돌봄교육론은 도덕교육의 이론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한, 인간화 교육을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다(추병완·박병춘·황인표 2002, 13). 교육학자 박병춘은 정의, 권리, 독립성, 자율성 등과 같은 합리적 도덕성을 중시해 인지 도덕성에만 편중된 도덕교육에서 소홀하게 취급된 돌봄, 책임, 상호의존성, 관계성 등과 같은 도덕성의 감정적인 측면을 돌봄윤리가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도덕성의 영역을 확대시키고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가능케 해주었다고 평가한다(박병춘 2005, 241-242).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도덕교육의 적용에 있어서 정의와 돌봄의 균형을 강조한다. 박병춘은 “도덕교육에서 인지가 배제되면 병적 감상에 빠질 위험이 있고,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하면 타인에게 무감각한 합리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며 자칫 돌봄을 여성적 특성으로 편협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박병춘 2005, 248). 따라서 그는 이를 경계해 불완전한 두 이론의 변증법적 통합적 관점에서 도덕성을 정의해 정의와 돌봄을 함께 갖춘 도덕적 인간상을 제시해야 할 필요를 제안한다(박병춘 2013, 181-182).

필자는 ‘도덕적 가치로서 감정에 대한 긍정(affirm)’을 나딩스 돌봄윤리의 가장 중요한 도덕교육적 의의라고 평가한다.⁴⁾ 돌봄윤리는 이성과 지성 중심의 합리성이 목살한 감정을 도덕교육적 가치로 복원한다. 이 점은 전통적으로 감정을 도덕의 영역 밖으로 간주했던 도덕 전통과 달리, 인간의 동감, 연민, 동정심과 상호의존적인 감정을 도덕적 원천으로 긍정하는 것이다. 이성, 영혼, 남성, 공적 영역을 도덕의 범주로 간주하고 반면 감정, 몸, 여성, 사적 영역을 도덕의 범주 밖으로 분류했던 전통 윤리

4) 박병춘(2005, 251)은 돌봄윤리의 도덕교육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타인에 대한 배려, 연민, 동정심, 상호의존성과 유대감, 도덕적 책임과 인간관계 등을 중시함으로써 도덕적 정서와 감정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둘째, 여성적 특성과 역할들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하며, 셋째, 도덕성의 영역을 확대시켜 주고, 넷째, 돌봄윤리는 정의윤리와 상호의존성과 불완전성을 밝힘으로써 두 윤리간의 통합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며, 다섯째, 윤리적 이상의 고양을 위한 다양한 교수방법을 제공함으로써 도덕과 교수방법의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한다.

에서 사장되었던 감정을, 나딩스의 돌봄교육론은 도덕교육적 차원에서 긍정하고 그 가치를 복원함으로써 이성 중심의 지성과 돌봄 중심의 인성이 겸비된 균형잡힌 인간상을 도덕교육적으로 유의미하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감정을 긍정한다는 측면에서 나딩스의 돌봄윤리는 ‘도덕적 휴머니즘(humanism)’이라 부를 수 있겠다. 나딩스의 돌봄윤리는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보편적 원칙을 찾고 인간에게 권장하기보다, 인간적 감정을 묵살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도덕교육의 시발점이자 도덕교육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도덕교육의 방편으로 활용한다. 비유하면, 자유주의 도덕관에서는 하늘을 가리키는 플라톤처럼 인간 삶의 지침을 인간 외부 즉 자연에서 찾으려 했다면, 나딩스의 돌봄윤리는 아이를 보는 성모상의 심상에서 도덕의 근원과 인간다움의 모범을 발굴해 인간 삶의 실천적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자유주의 도덕관에서는 아이를 보는 성모상에서 윤리와 도덕을 찾지 못하겠지만, 아이를 보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철학과 도덕교육을 발굴하고 추천했다는 점에서 나딩스의 돌봄윤리는 의미가 있다.

3. 돌봄윤리의 정치사회적 확장

앞서 살펴본 나딩스의 돌봄윤리는 전통윤리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윤리와 인간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 지점 또한 거론된다. 이는 나딩스 논의 자체의 한계라기보다 이후 돌봄윤리 논의가 확장되고 발전된 지점과 겹친다. 예컨대, 돌봄이론의 세대를 구분하는 한키브스키(Olena Hankivsky)는 길리건(Carol Gilligan 1982)을 바탕으로 여성의 도덕성(female morality), 어머니 같은(mothering), 돌보는(caring), 육성하는(nurturing) 활동과 경험을 접목

시키는 나딩스(Noddings 1984), 헬드(Virginia Held 1993), 러딕(Sara Ruddick 1989)의 돌봄윤리를 돌봄윤리 1세대로 분류한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적 개념을 넘어 “힘의 균등한 배분을 위한 민주적 정책의 기초로 이해하는” 정치적 개념으로 돌봄의 중요성을 확립하려는 트론토(Joan Tronto 1993)를 위시한 헬드(Held 2006), 잉스터(Daniel Engster 2007) 세븐후이젠(Selma Sevenhuijsen 1998) 등의 이론가들을 돌봄윤리 2세대로 분류한다(Hankivsky 2014, 252). 이 같은 세대 구분은 돌봄윤리 논의가 확장되는 추세와 흐름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나딩스를 넘어선 돌봄윤리의 확장은 다음의 지점에 주목한다. 첫째, 확장된 돌봄윤리는 존재론적 관계성을 강조한다. 모든 인간은 신생아에서 시작해야 하고, 섭식과 부축을 받아야 하는 영유아, 환자, 장애가 있는 혹은 노인의 삶을 살게 된다. 이렇듯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은 때로는 불평등한 힘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다. 이러한 유한한 삶 속에서 생존과 인간다운 삶의 복원을 위해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한다. 인간의 의존성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간이라는 종(種)의 특징으로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인간의 존재론적(ontology) 조건이다. 확장된 돌봄윤리의 정곡은 ‘인간의 의존성에 대한 인정’이라 할 수 있다(Held 2006; Engster 2007; Kittay 1999).

인간 존재론에서 강조하는 관계성은 나딩스 돌봄윤리의 관계성과 차이를 보인다. 나딩스의 논의가 어머니-자녀 관계를 전형으로 하는 교사-학생 관계에서의 돌봄적 관계 즉 교육적 차원의 관계를 강조한다면, 인간 존재론에서의 관계는 비교육적이지만 시급성과 절박성(urgency)이 강조되는 관계를 강조한다. 이는 학생이라는 일반적인 교육대상을 넘어선 영아, 노인, 환자, 장애인 등에 대한 생명유지와 활동 및 복원까지 포괄하는 삶의 ‘필수불가결한’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다. 나딩스의 돌봄윤리 역

시 본원적으로 ‘관계’ 윤리로서 관계 속의 타인에 주목하고 있지만, 관계의 존재론적 특징보다는 교육적 특징이 강조된다. 의료, 보건 및 전반적인 인간 삶에서 돌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보기보다, 교육적 지향과의 연계성에서 돌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둘째, 확장된 돌봄윤리는 다자적 관계를 전제한다. 나딩스의 돌봄윤리는 어머니-자녀 또는 교사-학생의 양자관계를 기초로 전개된다. 2세대 돌봄윤리가들에 따르면, 양자적 돌봄은 부정확하고 위험할 수 있다. 나딩스의 양자모델은 여러 명의 엄마역할자들(allomothers)의 협업으로 이뤄지는 다양한 돌봄양상을 고려할 때 부정확하며, 돌봄을 “착한 사람의 심성으로 환원”시키거나(Engster 2007, 32), 함께 돌볼 사람도 협력을 청할 사람도 없다는 이데올로기를 전파할 위험성이 있다(Tronto 2013, 288-289). “많은 노고, 자원, 협력(collaboration)이 있어야 하는” 돌봄의 조건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이와 관련된 제3의 행위자들 또는 제도들 없이 자연인 돌(natural individuals)만의 돌봄은 불가능해 보인다”(Tronto 2013, 26; Collins 2015, 124).

다자적 관계는 돌봄관계자‘들’의 다차원 관계이다. 예컨대, 커테이(Kittay 1999)는 ‘돌봄수혜자’와 ‘돌봄제공자’ 외에 돌봄자원을 제공하는 ‘돌봄자원제공자(provider)’를 강조하면서, 돌봄관계를 양자구도(dyadic)에서 삼자구도(triad)로 전환한다.⁵⁾ 그녀는 신생아를 돌보는 산모를 보살피는 돌봄제공자인 ‘둘라(doula)’의 사례를 들어, 돌봄관계와 이 관계가 생성하는 의무에서 파생된 일종의 사회적 파급효과(ripple effect)를 제언한다. 나아가, 버틀러(Samuel Butler)는 커테이의 삼자구도(triad)를 사자구도(tetrad)로 확장한다. 그에 따르면, 돌봄수혜자에 대한 돌봄제공자의 의존성에서 또 다시 두 가지 의존성이 또 분화되는데,

5) 트론토 역시 돌봄관계의 삼각화(triangulate)를 강조하는데, 이를 양자돌봄이 위계적일 수 있는 위험을 꺾 수 있는 시발점으로 본다(Tronto 2013, 290).

하나는 자원제공자에 대한 돌봄제공자의 의존이며, 또 하나는 자원제공자에게 자원을 요청하는 정치적 협력과 교섭을 대변하는 ‘청구자들(claimant)’에 대한 의존이다(Butler 2012). 더 나아가, 콜린스(Stephanie Collins)는 돌봄관계의 확장선상에서 단 한 사람이 아닌 많은 돌봄관련자들 간 협력적인 프로젝트로서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를 포함한 ‘집단적’ 관계의 가능성을 포괄하며 돌봄관계를 정치적 단계로 확장시킨다(Collins 2015, 124-136). 이러한 돌봄의 다자관계는 돌봄의 사회적 맥락과 제도의 필요성 및 돌봄관련자들과 돌봄제공자 간 역학구도를 보여줌으로써, 협력적인 관계로서 돌봄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셋째, 확장된 돌봄윤리는 돌봄을 파워와 불평등을 다루는 ‘정치’의 주제로 강조한다. 트론토는 돌봄을 “가능한 잘살 수 있도록 우리의 ‘세상’을 유지하고 지속하며 복원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종(種)의 활동”으로 정의함으로써 도덕적 개념뿐만 아니라 정치적 개념으로도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Tronto 1993, 103; 2013, 73). 트론토는 돌봄윤리를 정치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세 가지 경계—(1)윤리와 정치의 전통적인 경계, (2)구체화된 관점과 추상적이고 탈인격체적(impersonal) 관점의 경계, (3)공적 삶과 사적 삶의 경계—에 대해서 언급한다. 그녀는 이러한 경계들이 인간의 상호의존성을 설명하는 정치적 돌봄의 방식을 불분명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에게 발판을 확장해서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정치를 할 수 있는 방식을 모호하게 한다고 주장한다(Tronto 1993).

트론토를 필두로, 돌봄을 정치적 주제로 확립하려는 많은 논의들이 제기되었다. 사회의 필수요소로서 돌봄노동과 돌봄노동에 대한 현재적 착취를 맑시스트적으로 접근한 부베크(Diemut Bubeck 2002), 시민성원자격(citizenship)의 개념을 돌봐야 할 필요성과 돌봄이 빠지지 않도록 재편한 세븐후이젠(Sevenhuijsen 1998), 의존성을 기초로한 평등개념을

발전시킨 커테이(Kittay 1999)의 논의들이다. 이외에도 돌봄윤리는 복지 정책(Engster 2015), 회복적 정의(Elío, 2020), 구조적 부정의(Kim 2021) 등의 정치적 이슈로 확장하고 있다. 나딩스가 돌봄을 기쁨으로 보고 피돌봄자와 돌봄담당자의 상호작용에서 돌봄의 도덕적이고 교육적인 특징을 발굴해 강조했다면, 확장된 돌봄윤리는 돌봄이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임을 전제로 돌봄을 둘러싼 불평등한 관계와 맥락을 정치적 주제로 논의한다. 예를 들어, 트론토는 돌봄을 누군가는 해야 하는 부담일 수밖에 없는 돌봄책임은 모든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왜 지금까지 돌봄을 정치학의 주제로 다루지 않았는지 반문한다(Tronto 2013, 59).

확장된 돌봄윤리에 따르면 돌봄은 정치의 주제다. “윤리와 정치를 분리하면서 파워와 불평등이 도덕윤리(morality)에서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고 진단하는 트론토(Tronto 2013, 21-25)에 따르면, 인간 삶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고 누군가는 해야 하는 돌봄이 조직되는 방식은 평등한 삶이 가능해지는 시민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돌봄책임이 결정되는 방식은 정치 특히 민주사회의 주제다(Tronto 2013, 61). 하지만 그녀에 따르면, 고대, 근대 및 현대사회에서 돌봄은 사적인 전(前)정치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게다가 돌봄책임은 ‘자연적(natural)’이라는 미명으로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혹은 ‘가부장적인’ 위계적 방식으로 조직되고 있어, 특정 성이나 특정 계층에게 돌봄책임이 전가되고 있는데, 이러한 돌봄불평등은 민주시민의 자유, 평등, 정의의 차원에 부응하는지 민주적으로 재검토되고 재건되어야 한다고 보았다(Tronto 2013, 56-61).

4. 미래민주시민과 돌봄교육: 정치적 휴머니즘

앞장에서 살펴본 정치사회로 확장된 돌봄윤리의 특징과 관련지어, 미래의 민주시민에게 필요한 돌봄교육의 도덕교육적 함의는 무엇일까? 다시 말해, 도덕교육을 넘어 정치사회교육의 측면으로 확장된 돌봄윤리의 교육적 함의는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전에 돌봄교육의 정치사회적 측면을 언급하는 기존 논의에 대해 먼저 짚어보고자 한다. 돌봄을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노희정·홍기대 2021; 김민영 2022), 구체적 적용으로 트론토 돌봄윤리를 초등교육에 반영하는 논의(김혜진 2020) 등도 존재한다. 이들 논의는 인간의 돌봄의존성과 사회구조와 환경을 고려한 돌봄관계의 정치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자의 제안과 유사한 맥락이다.

하지만 필자는 인간의 의존성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돌봄책임의 불평등과 민주적 교정, 나아가 이에 대한 교육적 해법으로 실천을 지적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들 논의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제안하는 미래민주시민에게 필요한 돌봄교육의 도덕교육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교육에서 ‘인간의 의존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미래시민은 우리 모두가 돌봄의 수혜자이며 돌봄을 주고받는 평등한 존재임을 이해해야 한다. 인간 존재론적 차원에서 인간의 의존성과 취약성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 모든 인간은 어느 엄마의 자식이듯 의존적인 존재였으며 돌봄을 받은 존재들이다.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이 생로병사에 구애받는 한 취약한 모습도,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 모습도, 이를 외면하지 않는 모습도 인간의 지극히 인간적이고 정상적인 나아가 도덕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자유주의 도덕이 전제하는 인간상에서는 그렇지 않다. 홉스는 인간을 자연에서 혼자 나온 버섯처럼 자란 존재들로

이해하며(Held 2006에서 재인용), 칸트를 계승한 롤지안(Rawlsian) 자유주의에서도 인간을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없는 존재”로 상정한다 (Costa 2015, 85).

이러한 인간형에서는 인간의 취약한 모습과 의존적인 모습 그리고 돌봄을 주고받는 모습은 안보이다. 심지어 취약하고 의존적인 모습을 도덕적 모습에 못미치는 비정상의 범주에 두고 아이, 노인, 장애인, 그리고 환자와 이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조장된다. 아픈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혼자 힘으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도덕적 태도가 자유주의적 ‘정상인’을 대하는 태도와 다르지 않을 수 있는 돌봄교육이 필요하다. 자신은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취약한 상대를 대하는 태도에서 자신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생각하고 공감하며 대응할 수 있는 도덕적 역량을 갖고 닦을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존성에 대한 교육은 우리 모두가 돌봄수혜자임을 그렇기 때문에 돌봄을 함께 인정해야 하고 돌봄에 협력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둘째, 양자관계의 돌봄 구도를 넘는 돌봄교육이 필요하다. 어머니-자녀 혹은 선생님-학생 관계 처럼 돌봄을 양자구도로 보여주는 것은 돌봄의 인간적인 특징을 강조하는 분석적 수단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양자구도는 돌봄관계가 처한 여러 불평등한 맥락을 전체적으로 누락시킨다. 예를 들어, “돌봄관계가 위치하는 가부장적 맥락이나 돌봄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생계부양자 같은 조달자와 돌봄제공자간의 관계” 등을 보여주지 못하거나(Kittay 1999, 104), “돌봄제공자 역시 취약하고 어렵고 때로는 누군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못한다(Tronto 2013, 289).

돌봄을 전담하거나 그 부담이 과도하게 편중되면,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돌봄제공자는 큰 타격을 받는다. 돌봄 자체가 생애

사적인 기쁨이기는 하지만 심신의 에너지가 들어가는 부담이기도 하다. 돌봄을 장기간 전담하게 되면 고립과 단절감을 느끼게 되고 개인을 위한 준비시간이나 주변 사람들과 의미 있는 대화하기가 어려워진다. 어떤 돌봄은 큰 스트레스를 받고 심리적으로 위험한 탈진과 소진(burn out)을 경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과 노동 조건에 대해 자율성도 줄어들며, 돌봄을 위한 퇴사가 향후 연금의 하락을 동반하기에 노년기 빈곤의 위험 또한 높아진다(윤자영 2016).

양자구도는 이러한 ‘아이를 안고 있는 성모상의 슬픔’이 성별분업이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불평등과 파워관계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못 보게 하며, 그러한 슬픔을 덜어줄 수 있는 정치적 협력과 제도적 시정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시야와 민주적 상상력까지 사장시킬 우려가 있다. 과거 학교에서 공업과 기술은 남학생의 교과목으로 가정은 여학생의 교과목으로 지정했던 성별분업적 교육을 성찰해보면, 돌봄을 정치사회적 맥락과 무관하게 가정에서 엄마에게 부과되는 성스러움으로 간주하며 돌봄을 불평등하게 조직해왔던 권위주의와 그 현재적 유습 역시, 돌봄을 양자적으로 좁게 보며 그 시야 밖에 있는 불평등을 외면했던 시야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좋은’ 돌봄이 ‘슬프지 않을 수 있는’ 학교 담장 밖 사회적 맥락과 정치적 협력을 탐색할 수 있도록 양자관계 이상의 협력적 돌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돌봄교육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천으로서 돌봄교육이 요구된다. 앞서 언급한 양자 틀을 깨는 교육이 불평등을 시정하는 정치사회적 협력과 제도의 필요성과 관련된 논의라면, 실습으로서 돌봄교육은 그러한 협력과 제도를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개인적 태도와 역량이 관련된다. 실천으로서의 돌봄교육은 교과목으로 돌봄실습의 필요성과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필요하다. 먼저, 하나는 실천으로서 돌봄은 돌봄이 두뇌적 작용이 아니라 식사제공 수발 및 부축 등 신체접촉을 포함하는 실천 역량과 관련

된다. 돌봄은 약자에 대한 뇌파적 생각이란 의미의 배려나 정서적 지지를 의미하는 심정적 위로와 격려로 끝나지 않는다. 산모에 대한 수발, 영유아와 함께하기, 섭식 보조 및 배변 정리하기, 환자에 대한 간병, 장애인에 대한 수발, 노인에 대한 부축 등은 누군가가 몸소해야 하는 실천이 들어야 한다. 약자가 된 취약한 주변 사람들을 조우했을 때 미래시민은 취약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해야 하는 실천을 실습하고 체득함으로써 취약한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인간적 태도와 대응력을 체득해야 한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이다. 공사불문 남녀불문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협력적 기획이 있음을 다시 말해, 민주공화국이라는 민주적 협력이 가능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행학습이 될 것이다. 공교육에서 돌봄실천을 실습교과의 하나로 지정함으로써 돌봄은 사적으로 전수되는 것이라기보다 공적인 무엇이 됨으로써 함께 해야 하는 공무로 자연스럽게 인식되고 함양될 수 있다. 이러한 실습은 그 자체로 남녀불문 공사불문과 함께 하는 돌봄으로 보이고 체화시킴으로써, 가정이란 학교에서 아빠 엄마의 공사구분을 보며 부지불식간에 본받았던 윗세대 성별 분업의 답습을 민주적으로 성찰하고 교정할 수 있는 민주적 시민의 근성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건대, 정치사회적으로 확장된 인간다움을 위한 돌봄교육 즉 정치적 휴머니즘은 인간의 의존성뿐만 아니라 돌봄책임의 불평등과 민주적 교정을 요구하며, 이러한 정치적 제도적 제도를 요구한다. 나아가, 제도적 해법을 넘어 교육적 해법의 차원에서 돌봄실습을 제안한다. 우리 모두가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며 수시로 돌봄을 줘야 하는 돌봄에 의존해야 하는 평등한 존재들이라는 민주적 전제를 함양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의 두터워진 저변 위에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불평등을 감지하고 이를 외면하지 않는 협력과 제도의 필요성을 이해해야 한다. 계

다가, 정치사회적 제도의 운영과 향배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민주시민의 에토스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미래시민은 돌봄을 공사불문 남녀 불문의 돌봄실습을 통해 정치적 휴머니즘을 함양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도덕적 휴머니즘’에서 ‘정치적 휴머니즘’으로

이 글은 대안적 도덕으로서 돌봄의 교육적 함의를 나딩스의 돌봄윤리와 이를 모태로 하여 확장된 돌봄윤리 속에서 찾고자 했다.

인간의 심정과 반응에서 도덕성을 찾는 돌봄을 일종의 휴머니즘이라 할 때 돌봄윤리는 도덕적 휴머니즘에서 정치적 휴머니즘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성, 추상적 사고, 규칙과 원리만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인정했던 자유주의 도덕관은 아이를 보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윤리와 도덕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나딩스는 아이를 보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윤리와 도덕교육을 발굴하고 이상적인 교사와 학생의 모습으로 추천한다. 어머니들에게 힘입은 돌봄과 선생님께서 보여주었던 돌봄관계의 모범은 인간적 삶의 필수적인 그리고 도덕의 밑거름이다. 이처럼 나딩스는 다른 무엇으로 대체될 수 없고 인간만이 감응하고 전수할 수 있는 돌봄을 우리의 개인적 삶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유지시켜 주고 더 나아가 도덕적인 사회의 실현을 위한 초석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휴머니즘을 복원한다.

하지만 돌봄을 한다는 것은 많은 부담과 자원뿐만 아니라 협력이 필요한 관계이다. 돌봄관계를 둘러싼 돌봄관계자 간의 책임분담과 협력이 미비하면 돌봄을 감당하는 사람은 여러 차원에서 불평등을 겪게 된다. 민주사회라면 이러한 불평등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돌봄의 ‘도덕적 휴머니즘’

을 넘어 돌봄의 '정치적 휴머니즘'이 필요한 지점이다. 돌봄을 담당하더라도 슬프지 않을 수 있도록 불평등에 의한 이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정치적 책임의 사회적 공감대와 확고부동한 기초를 위해 미래 시민에게 사회 정치적 시야와 돌봄실천력을 키워 줄 돌봄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단단한 사회적 기초로 인간의 의존성이 이해되어야 한다. 나아가, 돌봄관계를 사회 정치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돌봄의 양자구도를 깨는 미래시민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미래민주시민을 위한 돌봄실습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미래시민은 공교육의 실습을 통해 돌봄실천을 공사불문 남녀불문으로 체득하여 평등지향의 민주시민의 근성을 함양해야 할 것이다.

서론의 기사 제목처럼 한국사회를 '권리중독'으로 단언하기에는 심도 깊은 후속 논의가 필요할 수 있겠다. 하지만 자기 이익 중심의 계산적 합리성과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권리로 이해하는 한국사회의 변화된 풍토는 여전히 도덕적으로 우려할 만하다. 이 글에서 필자는 돌봄을 대안적 윤리로서 즉 권리과잉 사회에 대한 '휴머니즘'적 해독제로서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그것이 '도덕적 휴머니즘'에서 '정치적 휴머니즘'으로 교육적 함의도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정치적 시야와 민주적 상상력이 배합된 돌봄교육을 통해 휴머니즘으로 단련된 민주시민을 기대해 본다.

(2024년 4월 5일 접수, 5월 8일 심사완료, 5월 20일 게재확정)

참고문헌

- 고미숙. 2018. “역자의 말.” 넬 나딩스. 고미숙 역. 『배려와 도덕교육』. 파주: 교육과학사.
- _____. 2022. “포스트휴머니즘과 배려윤리 교육.” 『도덕교육연구』. 34(1). 301-330.
- 김대균. 2011. “다문화사회에서 소수자 배려윤리.” 『윤리교육연구』. 24. 185-198.
- 김민영. 2022. “배려윤리의 비판적 고찰.” 『철학연구』. 161. 49-70.
- 김혜진. 2020. “새로운 도덕과 교육과정의 배려윤리 요소 반영 방안.” 『도덕윤리과교육』. 69. 37-60.
- 노희정·홍기대. 2021. “관계적 윤리와 배려의 도덕교육.” 『도덕윤리과교육』. 73. 255-277.
- 박병춘. 1998. “나딩스의 배려윤리와 도덕교육.” 『도덕윤리과교육』. 12(9). 381-398.
- _____. 2002. 『배려윤리와 도덕교육』. 서울: 울력.
- _____. 2005. “배려윤리의 초등 도덕과교육에의 적용방안.” 『도덕윤리과교육』. 20. 241-264.
- _____. 2013. “정의윤리와 배려윤리의 상호 관련성 연구.” 『윤리연구』. 93. 161-186.
- 송길영. 2024.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 서울: 교보문고.
- 아시아경제. 2023.09.03. “‘권리중독’에 빠진 부모들... ‘내 돈으로 요구하는데 왜?’”
- 윤자영. 2020. “무급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 『노동리뷰』. 188. 23-34.
- 정민주·이숙정. 2011. “특수교육 현장에서 ‘보살핌’ 실천의 의미: 나딩스(Noddings)의 관계윤리를 중심으로.” 『중증·지체부자유연구』. 54(1). 145-164.
- 조성민. 2013. “정의윤리와 배려윤리의 상보적 관계.” 『교원교육』. 29(3). 45-65.
- 추병완·박병춘·황인표. 2002. “역자 서문.” 넬 나딩스. 추병완·박병춘·황인표 역. 『배려교육론』. 서울: 다른우리.
- 한평수. 2009. “역자후기.” 넬 나딩스. 한평수 역. 2009. 『배려: 윤리와 도덕교육에 대한 여성적 접근법』. 서울: 천지.
- Elio, Blanca Ybarra. 2020. *Combining the Ethics of Care and Restorative Justice*. Tesis depositada en cumplimiento parcial de los requisitos para el grado de Doctor en Universidad Carlos III de Madrid.
- Bubeck, Diemut Grace. 2002. “Justice and the Labor of Care.” In Eva Feder Kittay and Ellen K. Feder (eds.). *The Subject of Care: Feminist*

- Perspectives on Dependency*.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 Butler Samuel. 2012. "A Fourth Subject Position of Care." *Hypatia*. 27(2). 390-406.
- Costa, Victoria. 2015. "Care." In Jon Mandle and David A. Reidy (eds). *Companion to Rawls Lexic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llins, Stephanie. 2015. *The Core of Care Ethics*. London: Palgrave MacMillan.
- Engster, Daniel. 2007. *The Heart of Justice: Care Ethics and Political 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김희강·나상원 역. 2017. 『돌봄: 정의의 심장』. 서울: 박영사.
- _____. 2015. *Justice, Care and the Welfare Sta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illigan, Carol. 1982. *In a Different Vo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Hankivsky, Olena. 2014. "Rethinking Care Ethics: on the Promise and Potential of an Intersectional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8(2). 252-264.
- Held, Virginia. 1993. *Feminist Morality: Transforming Culture, Society, and Polit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2006. *The Ethics of Care: Personal, Political and Globa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김희강·나상원 역. 2017. 『돌봄: 돌봄윤리』. 서울: 박영사.
- Kittay, Eva Feder. 1999. *Love's Labor: Essays on Women, Equality and Dependency*. New York: Routledge. 김희강·나상원 역. 2016. 『돌봄: 사랑의 노동』. 서울: 박영사.
- Kim Hee-Kang. 2021. "Care Ethics as a Challenge to the Structural Oppression Surrounding Care." *Ethics and Social Welfare*. 15(2). 151-166.
- Noddings, Nel. 1984. *Caring: A Feminine Approach to Ethics and Moral Educ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한평수 역. 2009.

- 『배려: 윤리와 도덕교육에 대한 여성적 접근법』. 서울: 천지.
- _____. 1992. *The Challenge to Care in Schools: An Alternative Approach to Education*.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추병완·박병춘·황인표 역. 2002. 『배려교육론』. 서울: 다른우리.
- _____. 2002. *Starting at Home: Caring and Social Policy*.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uddick, Sara. 1989. *Maternal Thinking: Toward a Politics of Peace*. Boston: Beacon Press.
- Sevenhuijsen, Selma. 1998. *Citizenship and The Ethics of Care: Feminist Considerations on Justice*. New York: Routledge.
- Tronto C. Joan. 1993. *Moral Boundaries: A Political Argument for an Ethic of Care*. New York: Routledge.
- _____. 2013. *Caring Democracy: Markets, Equality, and Justic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김희강·나상원 역. 2024. 『돌봄민주주의』. 한국어 개정판. 서울: 박영사.

Future Citizens and Caring Education:
From Moral Humanism To Political Humanism

*Sang Won Na**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the features of caring education as an alternative moral education and highlight its expansion beyond the realm of morality into the realm of politics and society, thereby suggesting the political and social implications of caring education for future citizenship education. It first introduces the ethics of care that has been developed and presented since then, including Nel Noddings's ethics of care, and expands on it compared to Noddings's discussion. Second, unlike previous studies centered on Noddings, it examines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future citizens of care ethics that has been extended to political and social aspects. Third, given that caring education is connected to fundamental question of what kind of education a moral citizen needs, it moves beyond Noddings's 'moral humanism' education to a politically and socially expanded education for

* Woosuk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humanity, which I refer to as ‘political humanism’ and examines the implications for future citizenship education for fostering this.

Key words: future citizenship education, caring education, moral humanism, political humanism, Nel Noddings